

연중제 16주 일

기도서 P. 394 C해

- 1독(창 세 18, 1-10절)
- 2독(골 로 1, 24-28절)
- 복음(루 가 10, 38-42절)

숲 정 이

발행인	법석규
인쇄인	정승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동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강론□



발 걸 음

김영신 신부

오늘 복음말씀에서 여행길을 걸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함께 하느님께로 가까이 걸어감을 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은 헛되고 조급하고 지나친 현실 활동에만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며 부산한 활동은 오히려 기도를 소홀히하게 하거나, 침묵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하여 결국 자기 활동자체의 힘을 상실케하지만..... 반면에 마리아에 대한 칭찬은 자기 영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그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어드리는 상태로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 편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느님께 눈을 향하고 정신을 하느님 음성 들는데 집중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쳐주는 이에 게 하느님은 더욱 완전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무릇 하느님 뜻대로만 생활한다면 이 세상 무엇이나 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삶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없을 때 우리 삶은 무의미해지고 아무런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야밤중까지 거리를 질주하는 운전수, 또는 공장에서 인간 대접도 못받으면서 기계처럼 되풀이 되는 따분한 직장에서 죽도록 일만 찾더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또는 노부모를 위해 또는 자립된 어떤 생활능력을 위해 기다리면서 살 때, 거기에 이 세상사는 맛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같이 잘사는 나라들은 자기 삶의 계획이 뚜렷이 서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그 계획을 착착 실천함으로써 결과를 보고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다릴 것이 없다는데 비극입니다. 왜 기다릴 것이 없느냐 하면 계획과 실천이 따르자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림의 떡이요 남의 것이 됩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생의 묘미는 기다리는데 있습니다. 마치 계돈을 모으듯이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발자국씩 옮겨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생활은 과연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단 말입니까? 노력해 보지도 않고 하느님과 남을 원망만 일삼아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이하고 얕은 욕망대로 살면서 남은 것은 우리 자신과 남에게 속아온 것 밖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에게 속아올대로 속아 보았으니 더 이상 속지 말고 살읍시다.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다". (천주교 전주 교구청 관리국장 신부)



우리는 하나

「로마에 유학중인 신부, 수녀, 신학생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권·정의구현을 통한 복음화의 증인으로 옥중에 있는 벗들과 옥외에서 봉사하고 있는 벗들을 위해> 9일기도를 바쳤다. 이들은 聖갈리스토 지하 공동묘지 성당에서 9일기도 마지막 날인 성심강림 주일 아침미사를 봉헌한 후 구속사제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성금 2백달러를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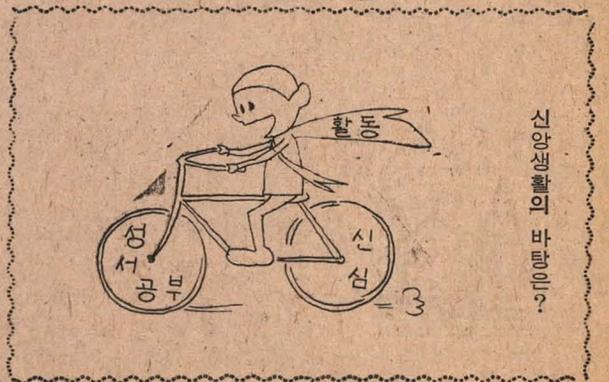
이 편지에서 그들은 "지금 형제들이 복음과 정의 때문에 치루고 계시는 갓가인 그 고통은 바로 주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택하신 고통이고, 성신을 받은 후 깨달은 사도들의 고통이며, 초대신도들 및 오늘 세계 도처에서의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같은(하나의) 聖苦임을 세삼 깊이 묵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이미 형제들이 내린 복음적 결단과 탁월한 정신적 자세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신의 열매임을 정신강림절인 오늘 다시 알게 되었기에 존경과 경의와 사랑을 느끼며 저희들도 같은 성신의 열매를 간구한다"고 전했다.

이상은 지난주 가톨릭시보에 보도된 기사다. 멀리 로마에서, 그것도 초대교회의 순교 선조들의 뜨거운 피로 성화된 지하 공동묘지(가디파파) 교회에서 성심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가진 9일기도를 마치고 성심강림 축일에 편지를 낸 것이다. 비록 몸은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신은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안에 하나로 일치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비록 우리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제각기 다 다르더라도 진리와 정의와 사랑에 하나되어 형제애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 인터뷰 ♣

“정말 아무런 感想 없다”

—진실한 이 尊重받는 社會돼야—

名博學位받고 歸國한 金 추기경



『학위는 감옥에 있는 문들이 받아야 하는데...직위 때문인지, 인권을 위해 공헌한 것도 없는 내가 대신 받은것 같다. 따라서 정말 아무런 감상이 없다.』

지난 5월 22일 미국 「인디애너」주 노트르담 대학에서 브라질의 아른스 추기경, 미국의 카터 대통령등 인권에 공헌한 전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6월 27일 김추기경은 학위를 받은 소감을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사람은 모두 14명. 미국국회(하원)의 오닐 의장도 받았단다.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회의관계로 「부득이 불참」했고 주일(駐日) 미대사 맨스필드씨는 학위를 받은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위해 평신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단다.

김추기경은 학위를 받는데 대해 「정말 감상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참석한 졸업식 분위기와 대통령의 연설에는 깊은 감명을 받은듯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받는 대통령!」이란 감탄을 되풀이 했다.

정치인 카터에 대해 김추기경은 「어떻게 보면 그의 정책이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현실정치와 거리가 있는것 같다. 그 때문에 그는 정치가로서는 실패한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실이 그를 못받아 들인다면 인류사회는 불행해 질것」이라고 단언했다. 카터는 세계를 향해, 도덕 인권을 제창하며 그것을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카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 현실이란 권모술수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일 것이고 그 가치관은 권모술수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어두운 세계를 향해 정치경제가 그런것이 아니라며 인간답게 사는 참된 가치관을 내세우는 정치가, 특히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정치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 추기경은 「우리가 이같은 카터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사람도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 박동선식이 아닌 성실을 바탕으로 대화를 벌인다면 세계를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를 포함, 카터의 대한정책에 수정의 여유가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국내 신문들이 카터에 대한 부정적이고 나쁜면만 추려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이상스러워했다.

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

킴으로써 강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이제 현실론이 김대중씨의 「4대국 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미군이 영구히 주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철군의 시기가 문제라며 현실점에서 미군 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철군은 남북한간에 바람직한 대화보다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무력경쟁으로 들어가 잘못되면 무력충돌의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박동선 김형욱씨 사건에 대한 교포사회의 여론을 묻자 「박·김씨는 교포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정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썼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왜 모든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안나올 수 있는 어떤 보장이 있는가?」고 거듭 반문한 후 국내에서도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개방 사회였다면 그렇게까지 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못내 안타까워 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변절자」라는 평을 받고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그런 사회가 예상못게 된 현실을 증시한 김 추기경은 “「변절자」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 「변절자」가 민족을 안팔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나? 변절자가 많은 민족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추기경은 3·1사건 복역자에게 개교친선을 요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가 도량을 베풀고 관대해야 「변절자」를 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추기경은 현실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결이며 이를 위해 「살아남기 주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고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말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하며 성실·정직진실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비난에 대해 김 추기경은 「사회는 교회에 대해 윤리적 향상」에 이바지 해 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고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 판단에 정치나 윤리가 제외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이 정치 경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편집자註...가톨릭시보 77년 7월 10일자 1면에서 전제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삼화운수 보일러 ☆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 각 시군대리점 구할<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2143)



알고싶은 『마리아 빨리』

김 스테파노 신부

「마리아 빨리」라는 말이 요즘은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진 말이지만 본뜻을 아는 이들이 별로 많지않은 것 같다.

나는 작년 여름에 처음 이 말을 들었고 어느 수녀 한분이 귀한 박 있어 유감에 못이겨 멀리 춘천 성심여대에서 있었던 마리아 빨리에 참석하였다. 나는 처음 등록 할 때부터 큰 실망을 가졌다. 공동체 목사회나 꾸르실로라던 4~50명 정도인데 700여명이나 모인다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을 주고 감명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지 아예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구나 생각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각처에서 구름떼같이 몰려 들었다. 돌난 어린이도 환갑이 지난 노인도 등록을 마치고 모두 좋아들 한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모두 강당에 모여보니 주최측에서 예상한대로 700명 이상이 되는성 싶다. 개회식도 서론도 없이 저마다 「젠<Gen>의 노래책」을 들고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만을 부르는데도 선배(작년생)들은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내 옆에 앉은 아가씨는 내가 명칭하니 알아있는 모습이 이상했던지 “아저씨는 왜 노래를 안 부르느냐?”는 것이다. 처음 듣는 노래가 방정스러워서 “왜 이렇게 노래가 방정스러우냐?”고 반문 했더니 약간 뻔뻔한 표정이다.

모두 한결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바람에 나도 그 커대한 집단안에 휘말려 들어감을 느꼈다. 「틀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마태오 18장 20절>」하신 말씀을 이토록 실감있게 느껴 본 적이 일찌기 없었다. 3박 4일이 끝나갈 무렵 저녁식사 후 잔디밭에 저절로 형성된 그물그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낯선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마리아 빨리 감상이 어떠한고 물었더니 “신부님 정말 너무 기뻐질까봐 걱정이예요” 진정 신앙이 주는 기쁨은 세속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을 절감했다.

일마전에 부산에서 마리아 빨리가 있었다. 마리아 빨리에 더욱 깊이 맛드려 보고파도 참석 하였다. 한참 진행중에 주교님이 오셨다. 조 교주적인 행사라서 인사차 오신 것으로 생각된다. 주교님이 단상에 오르셨지만 좀 긴 침묵이 흘렀다. 청중을 한참 바라보신 주교님의 첫 말씀이 “나는 마리아 빨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에 서린 기쁨과 웃음이 나에게 마리아 빨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내말이 틀렸습니까?” 청중들은 중정의 박수를 요란스럽게 쳤다.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이토록 기쁨을 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미처 몰랐을게다. 마리아 빨리는 「마리아의 도시」라는 뜻이고, 이 마리아 빨리를 주관하는 단체명은 휘폴라레인데 직역하면 「장작불처럼 타오른다」는 뜻이란다. 이 운동은 1943년 2차대전이 한창일무렵 이베리 (<까아라루빅>)이라고 하는 여성이 전쟁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을 의식한 나머지 시작된 것이다.

오는 7월 26일부터 3박 4일간 또 한번 춘천 성심여대에서 갖게 되는데 많은 참석을 권하고 싶다. 언제나 좋은 것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십이 (207)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야고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많이 찾아 주세요

군산梨花치과 의원

박 안드레아(찬운)
☎ 8711 (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극장

□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점정 □

뉴-타자 학원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⑥ 6 6 6 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동 605-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문
(전화 ③ 4577)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도산매
세무서 지정업체

봉천출판사

김정생(베드로)
전매청 오거리 ☎ ③ 2 6 6 9 번



1. 제 3 지구 학생 하기 수련회 개최 (7월 26~28일, 고산에서, 회비 700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제 3 지구 청년 하기 수련회 개최 (8월 1~4일, 고산에서, 회비 700원)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전주교구 교리교사 하기 수련회 (8월 1~4일, 부안 장신포 해수욕장)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전주교구 신학생 콘페런시아 (7월 19~21일, 진안상전) 19일 14시까지. 중앙성당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5. J.O.C 연수회 (16일 오후 5시반-17일, 가톨릭 셀타)
 6.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 (18일 <일> 오후 8시) 친구교 합동 기도회
- 수재 의연금 (노송동 본당 교우님들 1만원) 뜨거운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송안내... 문화방송 (MBC) ... 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봉섭 신부 방송
... 서해방송 (SBC) ...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소 순형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목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모회 월례회: 17일 10시 미사 후, 강당
 2. 미사참례 때 공동체 성가집을 지참합니다
 3. 회합실을 깨끗이! 회원들남 회합이 끝나고 나서는...?
 4.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루에 한장씩이라도 (9개월)
 5.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회계년도는 9월 말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7,041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울 동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도
 2. 성우회 야유회: 오늘
 3. 재속 형제회 월례회 모임시간 변경: 주일 오후 6시
- ※ 재임원 선출: 회장 박팔라치도(장춘), 부회장-정분도(진경), 한레지나(선희),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4. 침신회 발족! 회장-최미카엘(병철), 부회장-유아레스(미애) 많은 발전이 있기를 성원합니다
 5. 환자 봉성체: 19일 <화> 오후, 미리 알려 주세요
 6. 유아세례: 23일 <토> 오후 3시
- ※ 부모, 대부모는 2시 반까지 나오세요
7. 당분간 미사시간 변경 (주일미사는 전과 같음)
<월~목> 밤 8시, <금> 오전 10시 (아침미사는 없음)
학생미사, 토요일 특전미사- <토> 오후 7시 반
 8. M. R. A 대표로 쏜 해형 선생님 구라파로 한달간 떠나십니다. 많은 기도들...
- 지난주 봉헌금: 56,22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신축위원회 모임: 미사 후, 한 분도 빠짐없이...
 2. 청소년들의 화음구성: <금> 저녁미사 후 성가집, 성서 지참 하세요
 3. 미사때 당신은 빈손이 아니신지... 성서, 성가책 만이라도 ※ 미사시간은 철저히!
 4. 하계 아동 특별교리: 7, 25-30일
- 비품 신입 감사합니다: 교정수 (8구좌), 김엘리 (1구좌) 총 90구좌, 현재 총 신입액 8,863,000원
납부된 금액 3,887,500원
<정정합니다, 유정순(세시리아) 의자 10~1구좌>
- 지난주 봉헌금: 43,72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중 고등 학생회 지도회장-김종술(안철모), 부지도 회장-김화영(루카) 교리시간 <주일 오전 9시>

- 하계 특별 연수회: 개별 통지함
2. 하계 아동 특별교리: 7월 25-30, 관심 가지시고 보내 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3. 성우회: 다음 주일 <24일>, 고산(우천시 본당) 회원들은 첫 미사에 나오세요
 4. 고 김도민고 신부님 위한 연도: 매 미사 후, 한달간
- 지난주 봉헌금: 44,375원, 감사의 뜻으로 정성껏!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부녀주일, 미사 후에 월례회
2. 반상회
9반-19일, 10반-20일, 11반-21일, 12반-22일
3. 하계 어린이 특별교리: 25일~30일, 오전 9-12시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약속된 의무금 본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봉헌합니다
 2. 고등학생 쉼 및 회합: 매 <토> 오후 7시
 3. 중 고생 합동교리: 매 주일 오전 8시 반, 시간 엄수 바랍니다
 4. 첫 영성체 교리: 26일부터 매주 <화~금>
 5. 유아세례: 31일 <일> 공식미사 후
 6. 다음주 (24일) 신자들의 기도
김창영, 이중욱 선생님, 허옥순 부회장님
- 지난주 봉헌금: 52,48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유 석 준

1. 꼬미씨음 월례회
 2. 8월 15일 영세 예정, 이번주 부터 <수·목> 교리
 3. 성서 동지회 (B. F) 공개회합: <월> 밤 8시 반
 4. 남녀 청년 성지순례: 31일, 찬호공소
 5. 마리아 빨리 합창미사: 어제, 오늘
 6. 숲정이 후보 철약합니다
- 새 성당 건립 헌금을 기다립니다
- ※ 신축헌금: 전동-양한승 (12만, 벽돌1만장), 정정숙 (3만), 민비리깃타 (2만), 이금옥 (반지 3돈) / 교동-이병수, 동명각 (각 5만), 이엘리사벳 (3만), 이찬희 (2만), 김만순 (1만), 박양례 (1돈) / 서완산동-전주남 (3만), 이영례, 배바울라 (각 1만) / 동완산동-최기준 (5만), 최기윤 (1만 5천) / 기타-김미라 (1만), 김정기 (2만), 익명 (4만), 문지식 (10만)
- 주계: 659,400원, 금품: 4 돈
누계: 27,594,400원, 금품: 117돈